

2023. 11. 14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14일 오전 08:3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

자활지원과장

김경원

02-2133-748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자활지원팀장

기재일

02-2133-7489

‘자활 위한 초석’ 서울시 「쪽방촌 디딤돌 문화 교실」 수료식·전시회 개최

- 13일(월) 오후 3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‘디딤돌 문화 교실’ 수료식 개최
- 시민청에서 11.13.(월)부터 11.17.(금)까지 주민 작품 전시회 진행
- 쪽방촌 거주민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자아존중감 회복과 자활·자립 지원
- 시와 10년째 협력 중인 현대엔지니어링(주) ... 쪽방 주민 생활 여건 개선 큰 공헌

- 서울시는 13일(월) 오후 3시, 서울시청 본관 지하 2층 태평홀에서 「제8회 쪽방촌 디딤돌 문화 교실」 수료식을 개최했다.
 - 수료식에는 이수연 복지정책실장, 엄홍석 현대엔지니어링(주) 커뮤니케이션실장, 문화교실 수료자, 쪽방상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.
- 수료식은 올해 진행된 「제8회 쪽방촌 디딤돌 문화 교실」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쪽방 주민 42명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이다.
 - 디딤돌 문화 교실은 현대엔지니어링(주)의 후원으로 2014년 처음 시작되었으며, 쪽방촌 주민들의 자아존중감 회복과 소통능력 배양 등을 위해 진행되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.

- 올해 교육은 4월부터 10월까지, 5개 쪽방촌(돈의동, 창신동, 남대문, 서울역, 영등포)에서 한지조명반, 사진동아리, 보태니컬아트, 캘리그래피, 시화전 5개 반이 운영되었으며 총 42명이 참여해 과정을 수료하였다.
- 행사에서는 이수연 복지정책실장과 엄흥석 현대엔지니어링(주) 커뮤니케이션 실장이 함께 쪽방 주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으며,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. 이후에는 수료생들의 소감 발표 시간이 이어졌다.
- 문화교실 수료자 김종숙 씨는(가명, 73세) "집에만 있으면 편하지 않았는데, 문화교실에서 정서적으로 힐링도 하고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"라고 수료 소감을 밝혔다.
- 또한 13일(월)부터 17일(금)까지 쪽방 주민들이 디딤돌 문화 교실을 통해 만든 작품이 서울시청 본관 지하1층 시민층 시민플라자 A구역에서 전시된다.
- 5개 쪽방상담소 각각의 교육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한지조명 12점, 사진 14점, 보태니컬 아트 10점, 캘리그래피 11점, 시화 7점이 전시되며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.
- 한편, 현대엔지니어링(주)는 2013년 서울시와 맺은 「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 협약」에 따라 ▲주민 편의시설 개보수 및 확충 ▲주거 상향 지원 ▲자활작업장 등 일자리 창출 지원 ▲문화강좌·고향 방문 후원 ▲흑서기 및 흑한기 물품 지원 등 쪽방 주민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후원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.

- 현대엔지니어링(주) 관계자는 “디딤돌 문화교실 프로그램이 쪽방주민들이 삶의 활력소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”며, “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” 이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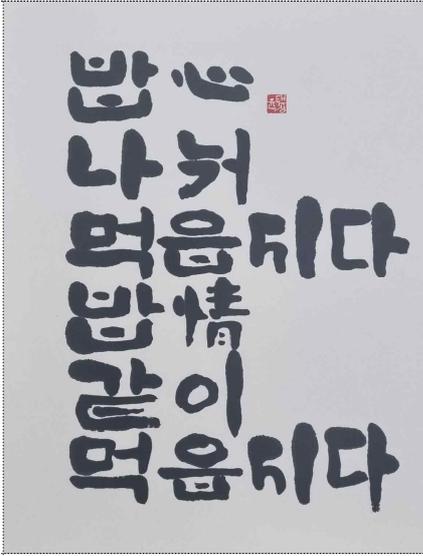
-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“쪽방 주민들의 자활 지원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현대엔지니어링(주)에 감사드린다. 또한 과정을 무사히 수료하신 마흔 두 분의 주민들에게 축하인사를 드리고, 디딤돌 문화교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의 초석이 되었기를 바란다.”라며 “서울시는 앞으로도 쪽방 주민과 동행할 수 있는 복지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붙임. 디딤돌 문화교실 작품 사진

[붙임] 디딤돌 문화교실 작품 사진



▲ 한지조명반 작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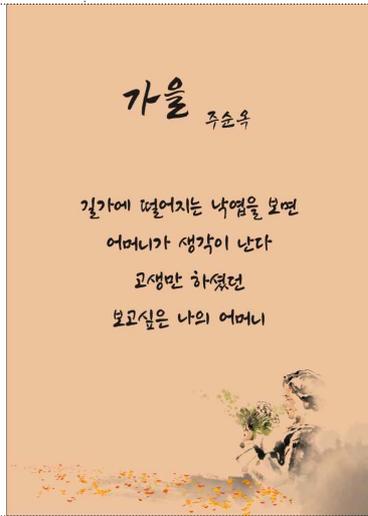
▲ 캘리그래피반 작품



▲ 보태니컬 아트반 작품



▲ 사진동아리반 작품



▲ 시화전반 작품